

한국 반 학습 계획

일시: 2020 년 4 월 4 일

교사: 김소희

교재: 한국어 8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제확인 1.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정해서 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하기 2. Google Forms 숙제 확인 (한옥, 사자성어, 남한산성) 3. 지난 주 숙제 중 읽기, '탁란' 확인
2교시 10:05~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과 속담 이야기: 그림에 알맞은 우리말 속담 말하기 2. 12과 문형/문법 '-김에'(동시 진행 표현하기) '-다더니'(회상적으로 인용하기) 3. 발음과 표기: -의미가 다른 두 단어의 용법과 표기를 익힌다. (다르다/틀리다, 늘어나다/늘어지다)
3교시 11:00~11:40	<p>민주주의 생활양식과 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정치의 기본 구성 3.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4교시 11:45~12:20	<p>조선후기 사회의 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도, 시/군, 구, 동/읍/면, 리)과 미국(states, county, city/town)의 행정구역 비교하기 2. 조선후기의 행정구역 3. 경술 대기근과 전염병 창궐 4. 당쟁이란 무엇인가? 5.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숙제	<p>_____ 학생은 위에 표시된 4월 4일자 숙제와 답안지 확인 및 채점을 모두 마쳤습니다.</p> <p>부모님 확인 서명: _____</p>

한국반	민주주의의 생활양식과 나	숙제(한자의 뜻과 소리 쓰기)
-----	---------------	------------------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民	主	主	義	自	由	平	和
백성 민	주인 주	주인 주	뜻 의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평평할 평	화할 화

2. 민주정치의 기본 구성

國	會	法	院	政	府
나라 국	모을 회	법 법	집 원	정사 정	관청 부

入	法	司	法	行	政
들어갈 입	법 법	말다 사	법 법	행하다 행	정사 정

3. 민주주의적인 해결 방법

對	話	妥	協	合	意
대답하다 대	말하다 화	온당하다 타	화하다 협	합하다 합	뜻 의

- 한자의 독음을 쓰고, 내용을 생각하며 읽기

民主政治()란 國民()의 투표에 의해 나라의 대표가 선출되며, 國會()와 法院() 그리고 政府(), 즉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의 3대 권력이平和적인 원리로서 분배되어 國民()의 自由()로운 의사와 참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政治()이다.

民主政治()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對話()와 妥協()이 필수적이며, 民主政治()의 대표는 合議()된 결론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반	받아쓰기	
------	------	--

1	두 사람은 쌍둥이 인데도 얼굴이 서로 다릅니다.
2	그 문제의 답이 틀렸습니다.
3	중국 인구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4	기운이 없어서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5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6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선생님도 틀리시네요.

한국 반	12과 속담 이야기	읽기
------	------------	----

● 교과서 ‘한국어 8’ 136쪽~ 137쪽을 읽고 답하세요.

1. 속담은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 속담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3. 아리스토텔레스는 속담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4.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5.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는 무슨 뜻인가요?
6. ‘책 속에 천 가지 재물이 있다.’ 는 무슨 뜻인가요?
7. 선생님이 실수로 틀렸을 때 속담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8. 학생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 속담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한국 반	문형/ 문법	
------	--------	--

● '-는 김에'를 넣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 하세요.

1. 아빠의 생신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동생이 생각나서 모자를 샀다.
2. 친척을 만나러 보스톤에 갔다. 내년엔 공부할 대학도 가보고 싶었다.
3. 비누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다. 치약도 하나 샀다.
4. 여행을 하면서 뉴욕에 갔다. 한국시장에도 들렀다.
5.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다. 일기도 썼다.
6. 말을 시작 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 '다더니'를 넣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 하세요.

1. 오늘 까지 작문 숙제를 다 한다고 했다. 정말 다 했다.
2. 친구가 1시까지 오다. 아직 오지 않았다.
3.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금 우리 반이 그래요.
4. 여자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해요.
5.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라면을 끓여 줬어요.

한국 반	발음과 표기	
------	--------	--

다르다(different from): 비교되는 둘이 서로 같지 않다.

틀리다(be mistaken, wrong): 정확하지 않다. 정답에 맞지 않다.

늘어나다(extend, lengthen): 길이가 길어지거나 양이 더 많아지다.

늘어지다(hang down, droop, be pendent): 힘이 없어서, 혹은 부드러워서 아래 방향을 향하다.

1. 두 사람은 형제이지만 성격은 서로 (달라요, 틀려요)
2. 제 생각은 그것과 (다릅니다, 틀립니다).
3. 요즘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몸무게가 (늘어났다, 늘어졌다).
4. 춘곤증인지 점심만 먹고 나면 몸이 축 (늘어진다, 늘어난다)
5. 한국어에는 같은 색깔을 표현하는 말이 많다. 예를 들어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등은 모두 노란색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 느낌은 많이 (다르다, 틀리다)
6.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을 강요한다면, 민주적인 결정을 위한 토론도 힘들 거야.

짧은 글짓기

1. 달라요:
2. 틀려서:
3. 늘어났다:
4. 늘어졌다:

한국 반	받아쓰기 연습	
------	---------	--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2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
3	공든 탑이 무너지라?
4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
5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6	등잔 밑이 어둡다.